

2024년 1월 4일

Preview

AI기술이 발전하며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 활용으로 인한 편리함만큼 주목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결과물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AI 산출물의 법적 지위나 결과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기준이 국가별로 달라 그 기준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인공지능(AI) 산출물을 둔 법적 이슈의 주요 내용과 각국 법원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인공지능(AI) 산출물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

민후 소식 Minwho News

양진영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

OOO페이 BM 특허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

SW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

리걸이슈

인공지능(AI) 산출물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27일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행해, 생성형 AI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는데, 특히 AI 학습 과정과 AI 산출물 생성 과정을 나눠 정리했다.

AI 학습을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이를 데이터셋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고,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일반적 공정이용 조항 적용 여부가 될 수 있다.



김경환 대표 변호사
T. 02-532-3425
E. oalmephaga@minwho.kr

AI 산출물의 경우도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파인튜닝을 함에 따라서 특정 저작물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AI 산출물에 대하여 과연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각국의 입장이 다소 상이해서, 핵심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심천시 난산 지방법원의 드림라이터 사건(2020년 4월),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스테이블디퓨전 사건(2023년 12월)에 대한 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드림라이터 사건은 지능형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라이터를 활용한 기사에 관한 사건이고, 스테이블 디퓨전 사건은 이미지 생성형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한 이미지 사건이다.

공통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기사·이미지는 AI 산출물인데, 원고가 기사·이미지를 만들 때 데이터 입력, 조건 설정, 템플릿 선택 행위, 프롬프트 입력 및 매개변수 조정 등에서 기여했으므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AI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AI 세계 시장에서 기업 등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입장은 다소 반대라 할 수 있는데, 스티븐 탈러가 2022년 2월 AI 프로그램인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로 기재하고 자신을 기계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 그림을 업무상저작물로 저작권 등록 시도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역시 2022년 8월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만든 18쪽 분량의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 및 2023년 9월 역시 미드저니를 이용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에 대해서도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우리나라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2022년 11월 유명 작가의 시를 텍스트 프롬프트로 삼고 이를 통해서 AI가 만들어낸 영상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등록을 시도한 사례에서 그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음악저작권협회 역시 2022년 7월 AI 산출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한 작곡가의 6개의 곡에 대하여 저작권료 지급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최근 발행된 우리 정부의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산출물에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됨으로써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자 내지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대, AI 산출물이라고 하여 권리를 맹목적으로 부정하지 말고, AI 산출물에 대한 인간의 기여를 적극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을 넘는 인간의 기여에 대해서는 그 법적 보호를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민후 소식

양진영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파트너 변호사는 2023년 12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강연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양진영 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진영 변호사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관련 기사보기>

- [연합뉴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신규 위원에 양진영 변호사 등 6명 위촉"](#)
- [디지털데일리 -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6명 위촉"](#)

민후 소식

OOO페이 BM 특허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 기업인 OOO페이에 대한 BM 특허침해 주장에 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결제서비스 구동 방식 등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 및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특허권자인 원고는 소송에서 피고 실시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특허침해가 성립한다는 점과 피고에게 특허침해에 따른 수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서 피고 실시서비스와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비교·대조하여 그 구성 등이 상호 동일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민후는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특허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재차 입증함은 물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후 소식

SW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 계약 관련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비용을 선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으로 정한 의무인 SW개발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계약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1심에서 원고의 개발 결과가 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계약으로 정한 산출물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민후는 원고가 당사자간 체결한 SW개발 용역 계약 조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